

고지혈증 환자에서 Atorvastatin (Lipitor)의 혈청지질 강하 효과

전상성, 박재형, 정현주, 손중천, 김광민, 김범택

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연구배경: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심혈 관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. 심혈 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로 고 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. Atorvastatin (Lipitor)이 고지혈증 환자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에서의 임상 연구는 없다. 따라서 저자는 한국인에서 Atorvastatin의 지질 강하 효과를 연구하였다.

방법: 본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아주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에 내원한 고 콜레스테롤혈증 환자 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연구 대상군의 평균연령은 47.8세(27~66세)이었다. 연구 대상은 약물치료 없이 추적 관리를 한 41명과 atorvastatin 20 mg을 매일 3개월 동안 복용한 41명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. 혈중 지질 검사는 연구 시작 전과 3개월에, 최소 12시간 금식한 상태에서 시행하였고 특별히 식이나 운동은 제한하지 않았다.

결과: Atorvastatin 투여 3개월 후 총 콜레스테롤은 대조군이 $-5.5 \pm 16.7\%$, atorvastatin 투여군이 $-25.5 \pm 15.8\%$, 저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대조군이 $1.4 \pm 28.5\%$, Atorvastatin 투여군이 $-30.1 \pm 28.9\%$ 로 두 군 간의 콜레스테롤 변화는 유의한 차이($P < 0.05$)가 있었다. 중성 지방은 대조군이 $-5.8 \pm 34.2\%$, 치료군이 $-3.5 \pm 54.8\%$ 로 변화($P = 0.81$)가 없었으나, 연구 전 혈중 농도 200 mg/dl 이상인 군은 대조군이 $-14.3 \pm 33.2\%$, 치료군이 $-39.0 \pm 23.2\%$ 로 유의한 차이($P < 0.05$)가 있었다.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대조군에서 $3.0 \pm 22.6\%$, 치료군에서 $-0.9 \pm 18.8\%$ 로 변화가 없었다. Atorvastatin의 콜레스테롤 강하 효과는 연령, 성별, BMI (Body Mass Index), 다른 심혈관계 질환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.

결론: Atorvastatin은 한국인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인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LDL, 중성 지방을 의미 있게 감소 시켰으나 HDL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

중심단어: 콜레스테롤, Atorvastatin, 중성지방